2013. January 1월호 [제7호]

부록

1. 2012년 항공운송시장 분석 / 125
2. IATA, 2013.1월 항공사 기업신뢰지수 설문조사 결과 발표 / 147
3. IATA 항공사 지역별 운송실적(11월) / 151

[부록]

1. 2012년 항공운송시장 분석[21)]

1.1 개요

- 2012년 국제 항공여객은 역대 최대 실적 기록하여 전년대비 11.9% 증가
  -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확대, 개별자유여행객(FIT) 증가, 한류 열풍 등이 원인으로 분석
- 항공화물은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전년대비 1.3% 감소

〈부록 표-1〉 항공운송수송실적

(단위: 회, 명, 톤, %)

	운항		여객		화물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국 내	151,512	155,608 (2.7)	20,980,803	21,601,518 (3.0)	281,133	265,277 (−5.6)
국 제	280,571	313,745 (11.8)	42,648,555	47,702,668 (11.9)	3,238,105	3,208,781 (−0.9)
합 계	432,083	469,353 (8.6)	63,629,358	69,304,186 (8.9)	3,519,238	3,474,058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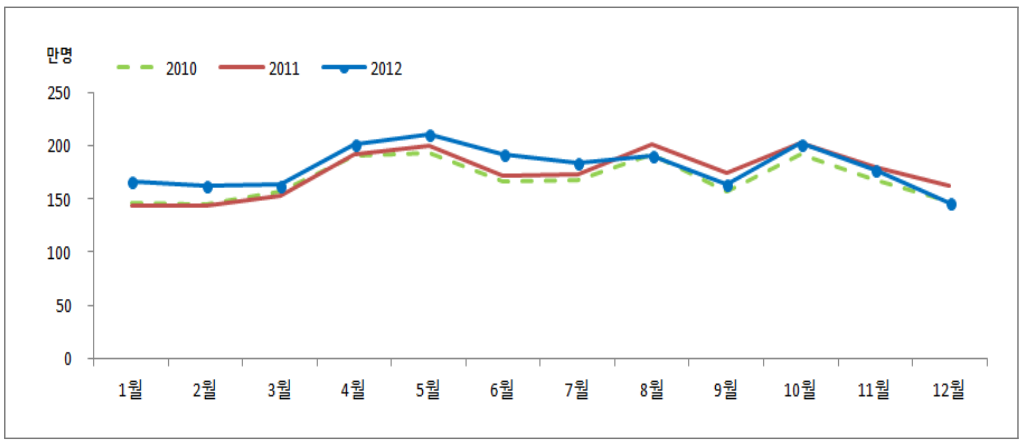
주: 1)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2) 국내는 출발기준, 국제는 출발+도착기준, 유임여객 기준
3)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공항공사

1.2 국내여객 수송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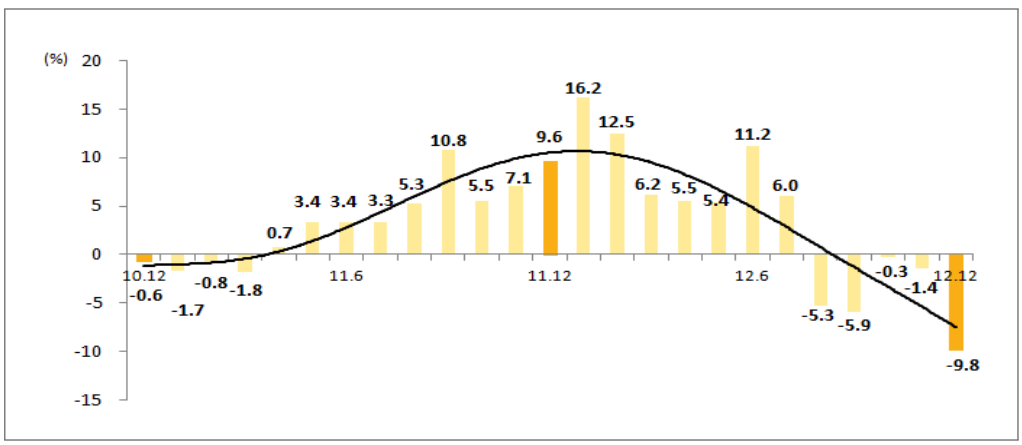
가. 총괄

- 국내여객은 태풍 등 기상악화, KTX 경부선 개통('10년 11월)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저비용항공사의 다양한 운임할인 마케팅, 제주관광수요 증가로 전년대비 3.0% 증가한 2,160만명 기록(2,098만명 → 2,160만명)

21) 국토해양부, 『2012년 항공운송동향분석 보도자료』 인용 및 분석 내용을 추가하였음



[부록 그림-1] 최근 3년간 국내선 여객실적 추이



[부록 그림-2] 국내여객 증감률

나. 공항

- 인천공항은 국제선 환승전용 내항기, 인천을 경유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증가
- 김해·여수·울산공항[22]은 KTX 개통[23]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

22) 김포-김해노선 '10년 대비 -11.5%, '11년 대비 -6.7%, 김포-울산노선 '10년 대비 -47.8%, '11년 대비 -12.7%, 김포-여수노선 '10년 대비 -4.4%, '11년 대비 -0.7%

23) KTX 2단계 개통 : 2010년 11월, KTX 전라선 개통 : 2011년 10월

〈부록 표-2〉 공항별 국내여객실적

(단위: 명, %)

구 분	제주	김포	김해	광주	청주	대구	여수	인천	울산
2011년	8,184,972	7,310,498	2,571,309	671,827	580,128	501,940	312,565	235,878	294,534
2012년	8,612,329	7,552,395	2,539,179	673,893	569,868	477,207	310,868	291,659	257,812
전년대비 증감률(%)	5.2	3.3	−1.2	0.3	−1.8	−4.9	−0.5	23.6	−12.5

주: 출발 및 유임여객 기준
자료: 한국공항공사

다. 제주-내륙 노선 국내여객 실적

- 제주노선은 전체 노선의 79.2%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년대비 5.3% 증가한 1,711만 9천명을 기록
- 탑승률의 경우 제주노선은 81.5%로 전년대비 2.5%p 증가

〈부록 표-3〉 제주·내륙노선 국내여객실적 비교

(단위: 명, %)

구 분	제주노선		내륙노선		전체노선	
	여객	탑승률	여객	탑승률	여객	탑승률
'11년	16,263,448	79.0	4,717,355	61.8	20,980,803	74.4
'12년	17,118,519	81.5	4,482,999	63.7	21,601,518	77.1
전년대비증감	855,071	2.5	−234,356	1.9	620,715	2.7

주: 출발기준, 유임여객 기준
자료: 한국공항공사

라. 항공사

- 국내여객운송량의 경우 대형국적사는 1,213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1.3% 감소, 저비용항공사는 946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9.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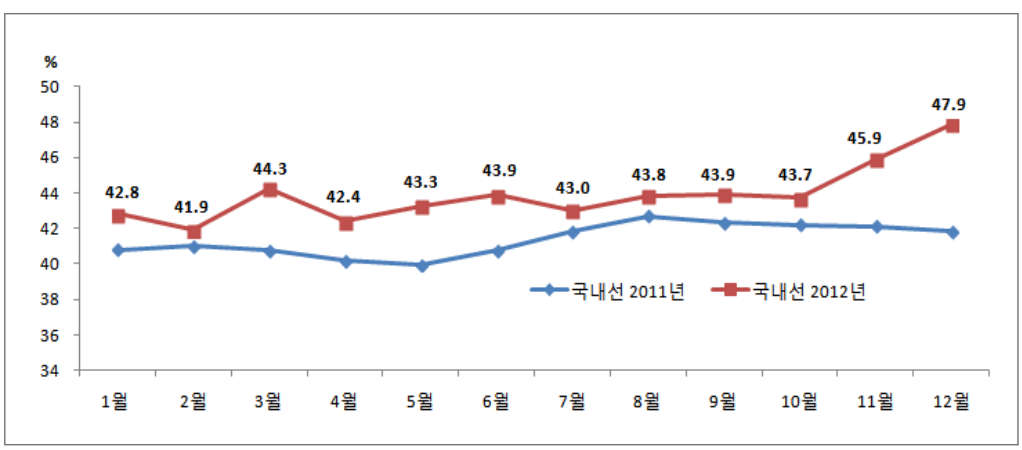
〈부록 표-4〉 항공사별 국내여객실적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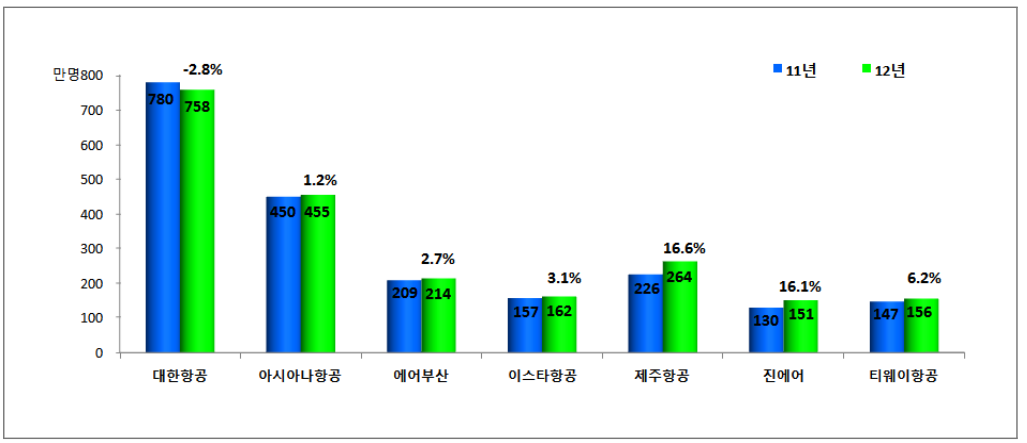
구분		'11년	'12년	전년대비 증감률(%)
대형 국적사	대한항공	7,795,067	7,579,117	-2.8
	아시아나항공	4,499,516	4,554,256	1.2
	소계	12,294,583	12,133,373	-1.3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	2,085,541	2,142,223	2.7
	이스타항공	1,570,161	1,619,410	3.1
	제주항공	2,259,761	2,635,697	16.6
	진에어	1,300,441	1,509,484	16.1
	티웨이항공	1,470,316	1,561,331	6.2
	소계	8,686,220	9,468,145	9.0
국적사 계		20,980,803	21,601,518	3.0
외항사 계		-	-	-
총계		20,980,803	21,601,518	3.0

주: 출발 및 유임여객 기준
자료: 한국공항공사

- 저비용항공사의 국내여객 운송량은 947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1.1배 증가, 분담률도 2.4%포인트 상승한 43.8% 기록
  - LCC 분담률 : 27.4%('09년) → 34.7%('10년) → 41.4%('11년) → 43.8%('12년)



[부록 그림-3] 저비용항공사 국내선 월별 분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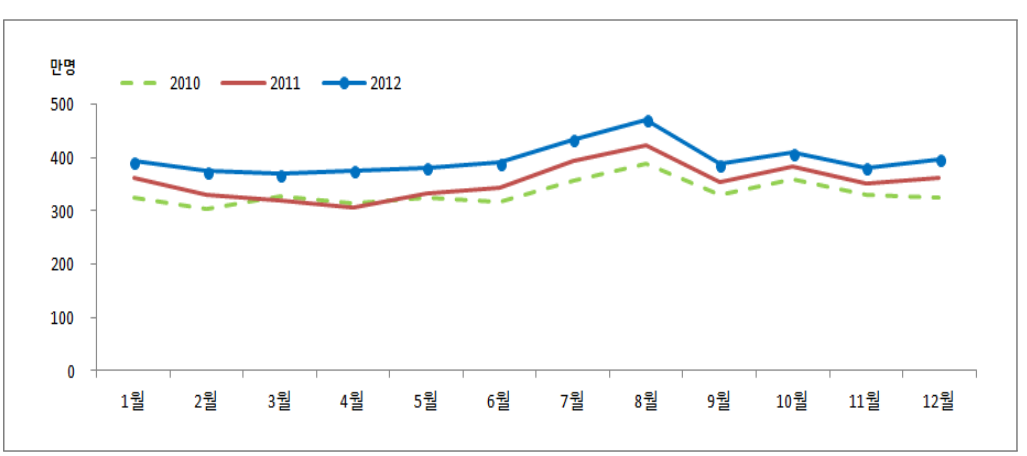


[부록 그림-4] 국내선 항공사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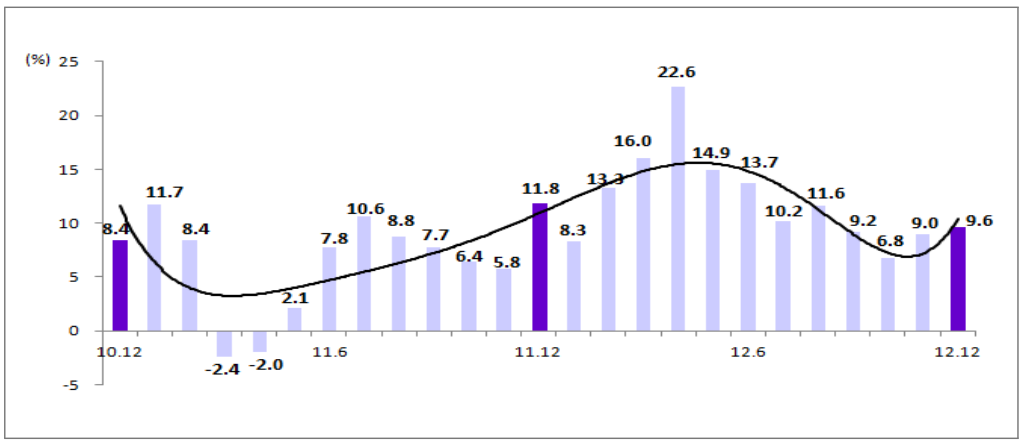
1.3 국제여객 수송실적

가. 총괄

- 국제여객은 전년대비 11.9% 증가한 4,770만명으로 전년에 이어 역대 최고실적 갱신 (4,265만명 → 4,770만명)
  - K-Pop 신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류문화관광, 의료관광, 개별자유여행객(FIT) 증가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
  -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을 통한 가족여행객 증가, 주요 기업들의 연차 사용 권장으로 인해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
  -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노선 공급력 확대 등이 원인으로 분석



[부록 그림-5] 최근 3년간 국제선 여객실적 추이



[부록 그림-6] 국제여객 증감률

나. 공항

- 강원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양양공항이 하얼빈, 대련노선 (주3회) 부정기편 신규 취항하여 큰 성장세 기록
- 제주공항은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직항 항공편 증가로 전년대비 51.0% 증가
  - 푸동, 북경, 닝보 등 중국노선이 급격하게 성장하여 제주항공의 증가세를 이끌었음
  - 중국노선은 전년대비 86.6% 증가하여 61만 8천명 기록
    - 중국노선 비중은 2011년 46.3%에서 2012년 57.2%로 10.9%p 증가
  - 일본노선은 전년대비 3.3% 증가하여 33만 5천명 기록
    - 일본노선 비중은 2011년 45.3%에서 2012년 31.0%로 14.3%p 감소

〈부록 표-5〉 공항별 국제선 운항·여객실적

(단위: 명, %)

구 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2011년	34,354,855	3,663,042	3,517,967	716,771	165,429	149,253	75,490	5,748
2012년	38,138,520	4,077,772	4,008,966	1,082,579	147,311	143,787	78,903	23,345
전년대비 증감률(%)	11.0	11.3	14.0	51.0	−11.0%	−3.7	4.5	306.1

주: 출발+도착 및 유임여객 기준 / 자료: 한국공항공사

다. 지역

-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전 지역이 전년대비 증가추세를 보였음
- 지역별로 국제여객실적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동남아(33.1%), 일본(24.1%), 중국(22.6%)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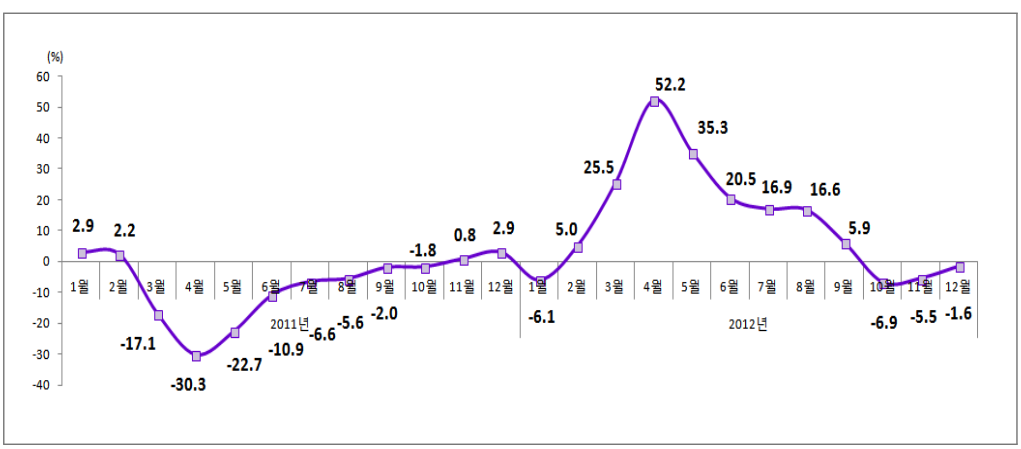
〈부록 표-6〉 지역별 국제여객실적

(단위: 명, %)

구 분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2011년	10,374,889	9,731,326	13,704,373	3,903,426	2,849,726	1,438,182	646,633
2012년	11,516,800	10,790,467	15,778,849	4,042,186	3,178,149	1,667,536	728,681
전년대비 증감률(%)	11.0	10.9	15.1	3.6	11.5	15.9	12.7

주: 출발+도착기준, 유임여객 기준
자료: 한국공항공사

- 일본노선은 2011.3월 대지진·원전사고로 인한 기저효과로 지난 3월부터 연속 6개월 두 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으나 독도 갈등으로 인한 한일 외교관계 경색으로 10월 하락세로 전환되어 전년대비 11.0% 증가
  - 증감률 : 25.5%(3월) → 52.2%(4월) → 35.3%(5월) → 20.5%(6월) → 16.9%(7월) → 16.6%(8월) → 5.9%(9월) → −6.9%(10월) → −5.5%(11월) → −1.6%(12월)



[부록 그림-7] 3월 대지진발생 이후 일본여객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 중국노선은 중국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제도 완화, LCC 운항의 2011년 대비 4.2배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
- 동남아노선은 국제선의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계절관광객 증가, 한류열풍, 단거리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

라. 항공사

- 국제여객운송량의 경우 대형국적사는 2,821만 3천명으로 전년대비 7.3% 증가, 저비용항공사는 358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95.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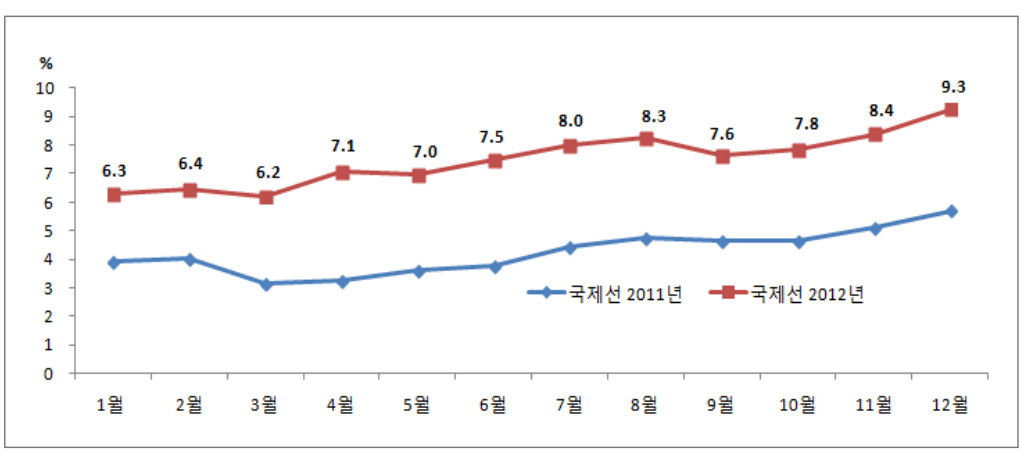
〈부록 표-7〉 항공사별 국제여객실적 비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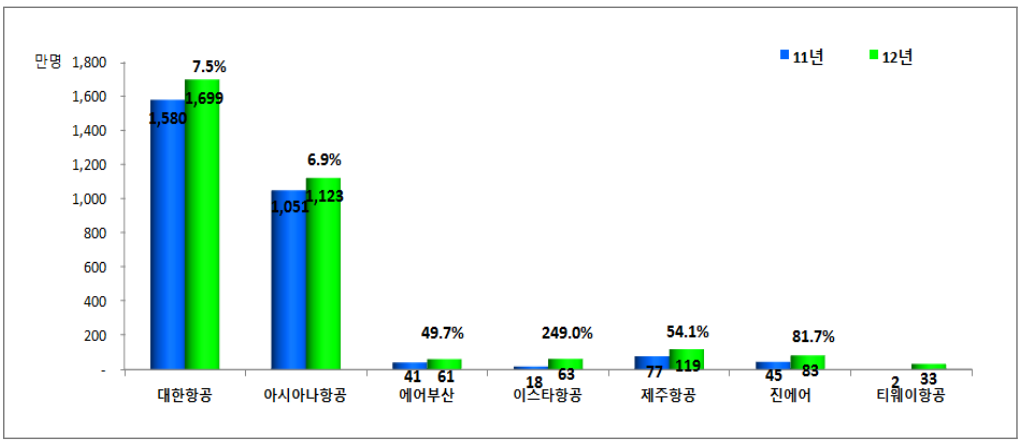
구분		'11년	'12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대형 국적사	대한항공	15,796,367	16,986,675	7.5
	아시아나항공	10,505,263	11,226,400	6.9
	소계	26,301,630	28,213,075	7.3
저비용 항공사	에어부산	407,350	609,919	49.7
	이스타항공	179,665	627,066	249.0
	제주항공	774,121	1,192,888	54.1
	진에어	454,478	825,731	81.7
	티웨이항공	18,922	331,903	1654.1
	소계	1,834,536	3,587,507	95.6
국적사 계		28,136,166	31,800,582	13.0
외항사 계		14,512,389	15,902,086	9.6
총계		42,648,555	47,702,668	11.9

주: 국내는 출발기준, 국제는 출발+도착기준, 유임여객 기준
자료: 한국공항공사

- 국적사 분담률은 66.7%로,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는 전년대비 2배 증가한 7.5% 기록
  - LCC 분담률 : 0.5%('09년) → 2.3%('10년) → 4.3%('11년) → 7.5%('12년)



[부록 그림-8] 저비용항공사 국제선 월별 분담률 추이



[부록 그림-9] 국제선 항공사별 실적

마. 인천공항 환승여객

- 인천공항 환승여객[24]은 내항기[25] 환승객 활성화, 전략적 환승 마케팅 활동, 공급력 증대 등으로 전년대비 21.1% 증가한 686만명 기록하며 개항 이래 역대 최고치 달성, 환승률도 전년대비 1.4%p 증가한 17.8% 기록
  - 환승여객 : 520만명('09년) → 519만명('10년) → 566만명('11년) → 686만명('12년)
  - 환승률 : 18.4%('09년) → 15.8%('10년) → 16.4%('11년) → 17.8%('12년)

1.4 항공화물 수송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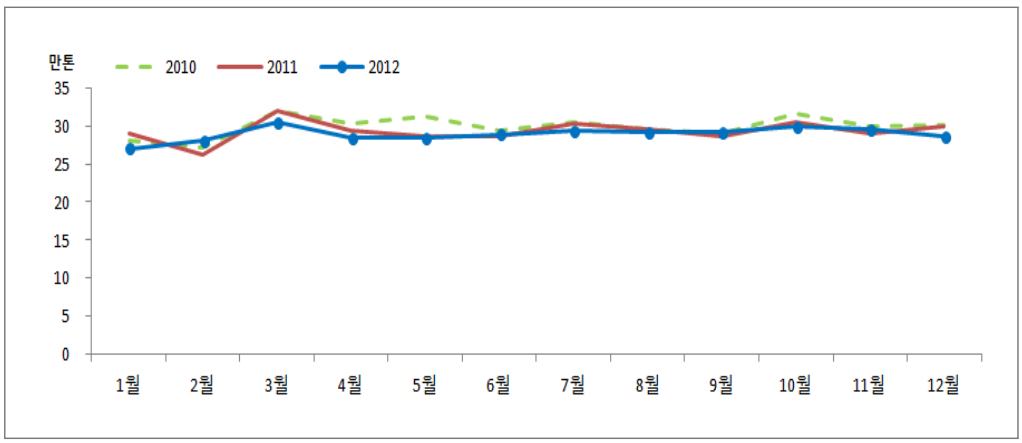
가. 총괄

- 항공화물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 지속, 주요 교역국 경제성장 부진, 소비심리위축 등으로 인한 국제 및 국내화물 감소로 전년대비 1.3% 감소(352만톤 → 347만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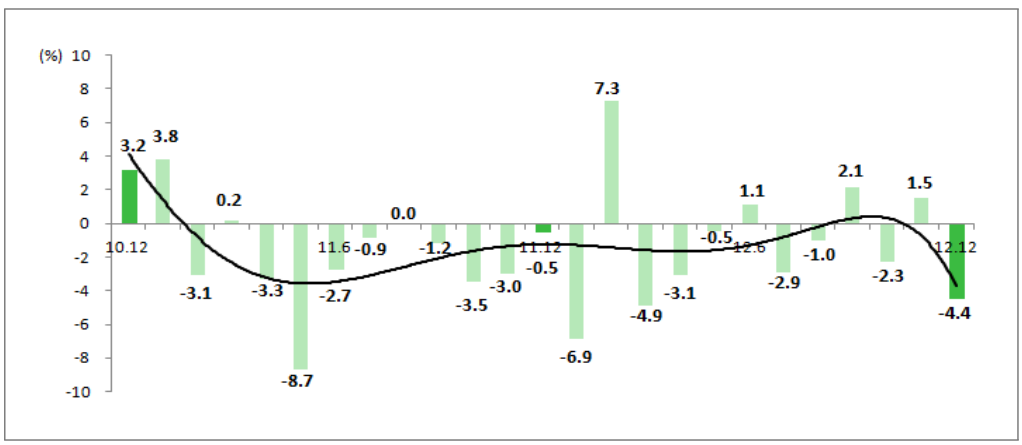
24) 도착통과여객 및 국내 환승객 포함

25) (국제선 환승전용 내항기) 김해-인천공항간 운항하는 국내선 항공편으로 ①인천공항에서 국제선을 환승하려는 승객과 ②국제선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 승객만 탑승할 수 있으며 김해공항에서 CIQ를 시행함

26) 수하물 포함



[부록 그림-10] 최근 3년간 항공화물실적 추이



[부록 그림-11] 전체 항공화물 증감률

- 국제화물은 유럽 재정위기, 미국 경기회복둔화 등 세계경기침체 및 주요 수출 품목인 IT제품의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0.9% 감소(324만톤 → 321만톤)
- 국내화물은 26만톤으로 전년대비 5.6% 감소

나. 지역

- 동남아·기타를 제외한 전 지역이 감소 추세를 보였음
- 지역별 국제화물 실적 점유율은 동남아(27.8%), 미주(20.5%), 중국(18.0%), 유럽(16.8%), 일본(13.4%) 순으로 나타났음

〈부록 표-8〉 지역별 국제화물실적

(단위: 톤)

공 항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2011년	439,415	598,681	859,696	685,018	554,449	55,005	45,841
2012년	431,318	577,721	893,314	656,990	538,503	54,063	56,872
전년대비	−1.8%	−3.5%	3.9%	−4.1%	−2.9%	−1.7%	24.1%

자료: 한국공항공사

다. 항공사

- 항공사별 국내화물실적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한항공 63.3%, 아시아나항공 16.9%, 에어부산 5.8%, 제주항공에 5.1% 순으로 높음
- 국내 (순)화물은 대형항공사 위주로 대한항공(82.0% 비중)은 전년대비 14.7% 감소, 아시아나항공(14.0% 비중)은 0.2% 증가
- 저비용항공사의 화물은 수하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에어부산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은 증가세를 보였음

〈부록 표-9〉 항공사별 국내화물실적 비교

(단위: 톤, %)

구분	'11년				'12년			
	화물	수하물	우편물	총화물	화물	수하물	우편물	총화물
대한항공	146,094	42,784	602	189,479	124,590 (−14.7)	43,057 (0.6)	350 (−41.9)	167,997 (−11.3)
아시아나항공	21,223	22,986	3	44,212	21,257 (0.2)	23,458 (2.1)	0 (−88.4)	44,715 (1.1)
에어부산	7,009	8,511	1	15,521	6,121 (−12.7)	9,308 (9.4)	1 (−35.1)	15,430 (−0.6)
이스타항공	2	7,702	2	7,706	12 (547.8)	8,027 (4.2)	1 (−60.0)	8,040 (4.3)
제주항공	1	11,203	4	11,207	1 (−14.8)	13,638 (21.7)	3 (−10.2)	13,642 (21.7)
진에어	0	6,456	2	6,459	0 (150.9)	8,026 (24.3)	4 (48.4)	8,030 (24.3)
티웨이항공	35	6,512	2	6,549	1 (−97.8)	7,422 (14.0)	1 (−37.9)	7,424 (13.4)
합 계	174,363	106,154	616	281,133	152,638 (−12.5)	112,998 (6.4)	173 (−72.0)	265,316 (−5.6)

주: 1)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출발기준
3)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공항공사

- 항공사별 국제화물실적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국적사 71.4%(대한항공 46.0%, 아시아나항공 24.1% 등), 외항사 28.6%로 나타남
- 국제 (순)화물은 대형항공사 위주로 대한항공(48.4% 비중)은 전년대비 7.5% 감소, 아시아나항공(24.0% 비중)은 0.1% 감소
- 저비용항공사의 화물은 수하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노선 취항으로 인한 국제 여객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증가세가 나타남

〈부록 표-10〉 항공사별 국제화물실적 비교

(단위: 톤, %)

구분	'11년				'12년			
	화물	수하물	우편물	총화물	화물	수하물	우편물	총화물
대한항공	1,276,948	259,741	24,732	1,561,421	1,180,591 (−7.5)	271,569 (4.6)	25,054 (1.3)	1,477,213 (−5.4)
아시아나항공	585,687	156,719	18,385	760,790	585,159 (−0.1)	167,808 (7.1)	19,572 (6.5)	772,539 (1.5)
에어부산	8	4,353	0	4,361	14 (75.0)	6,622 (52.1)	1	6,637 (52.2)
이스타항공	6	2,046	3	2,054	13 (116.7)	6,226 (204.3)	0 (−100.0)	6,239 (203.7)
제주항공	0	9,170	0	9,170	2,864	13,677 (49.1)	2	16,543 (80.4)
진에어	0	4,836	0	4,836	1	8,799 (81.9)	1	8,801 (82.0)
티웨이항공	0	208	0	208	0	3,313 (1,492.8)	0	3,313 (1,492.8)
국적사 소계	1,862,649	437,072	43,119	2,342,840	1,768,642 (−5.0)	478,012 (9.4)	44,630 (3.5)	2,291,284 (−2.2)
외항사 소계	662,591	211,064	21,609	895,264	669,783 (1.1)	223,106 (5.7)	24,607 (13.9)	917,497 (2.5)
합 계	2,525,240	648,137	64,728	3,238,105	2,438,426 (−3.4)	701,118 (8.2)	69,237 (7.0)	3,208,781 (−0.9)

주: 1) ( ) 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 출발+도착기준
3)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한국공항공사

라. 인천공항 환적화물

- 인천공항 환적화물(110만톤)은 전년대비 5.3% 감소
  - 환적화물 : 109.1만톤('09년) → 117.6만톤('10년) → 115.8만톤('11년) → 109.7만톤('12년)
  - 환적률 : 47.2%('09년) → 43.8%('10년) → 45.6%('11년) → 44.6%('12년)

1.5 공항 출입국 동향

가. 개요

- 2012년 전체 출입국자는 2,488만명을 기록, 전년대비 10.6% 증가
  - 외래객 입국자는 1,114만명을 기록, 13.7% 증가
  - 내국인 출국자는 1,374만명을 기록, 8.2% 증가
- 공항 이용 출입국자는 2,249만명을 기록, 전년대비 11.8% 증가
  - 공항 이용 외래객 입국은 976만명을 기록, 16.5% 증가
  - 공항 이용 내국인 출국은 1,273만명을 기록, 8.4% 증가

〈부록 표-11〉 출입국 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공 항							항 구 등		합 계
	인천	김해	김포	제주	기타*	계	이용률(%)	계	이용률(%)	
외래객입국	6,983	742	1,251	708	76	9,760	87.6	1,381	12.4	11,141
내국인출국	10,200	1,496	833	55	148	12,732	92.7	1,006	7.3	13,738
계	17,183	2,237	2,085	762	224	22,492	90.4	2,387	9.6	24,879

주: 1) 공항 중 기타는 대구, 광주, 청주, 오산, 성남, 양양, 무안공항을 포함
2) 반올림으로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tat.tour.go.kr)

나. 공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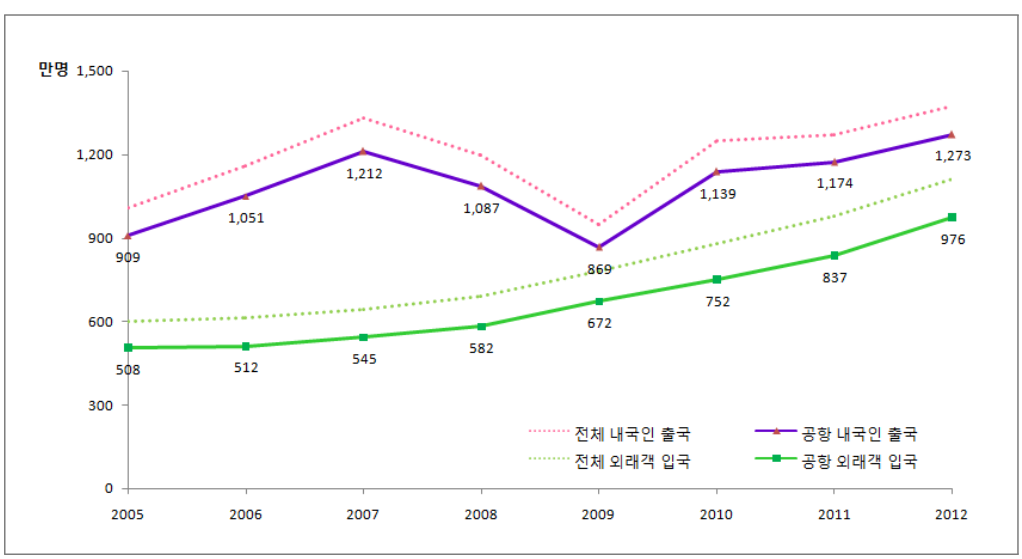
- 외래객 입국 점유는 인천 62.7%, 김포 11.2%, 김해 6.7%, 제주공항 6.4% 순으로 전체의 87.0%를 차지
- 내국인 출국 점유는 인천 74.3%, 김해 10.9%, 김포공항 6.1% 순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

〈부록 표-12〉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현황

(단위: 명, %)

구 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내국인 비중(%)
	2011년	2012년	증감률 (%)	이용률 (%)	2011년	2012년	증감률 (%)	이용률 (%)	
공 항	8,374,903	9,759,454	16.5	87.6	11,742,367	12,731,310	8.4	92.7	56.6
· 인천	6,112,296	6,982,771	14.2	62.7	9,542,136	10,200,071	6.9	74.3	59.4
· 김해	614,860	741,716	20.6	6.7	1,263,064	1,495,583	18.4	10.9	66.8
· 김포	1,147,472	1,251,469	9.1	11.2	714,941	833,085	16.5	6.1	40.0
· 제주	450,828	707,518	56.9	6.4	45,770	54,667	19.4	0.4	7.2
· 대구	11,659	9,706	-16.8	0.1	74,686	68,333	-8.5	0.5	87.6
· 광주	-	-	-	-	-	8	-	0.0	100.0
· 청주	20,287	37,432	84.5	0.3	59,758	38,580	-35.4	0.3	50.8
· 오산	10,081	11,589	15.0	0.1	211	271	28.4	0.0	2.3
· 성남	1,063	1,347	26.7	0.0	4,116	2,899	-29.6	0.0	68.3
· 양양	2,253	11,314	402.2	0.1	823	474	-42.4	0.0	4.0
· 무안	4,104	4,592	11.9	0.0	36,862	37,339	1.3	0.3	89.0
항구 등	1,419,893	1,380,574	-2.8	12.4	951,366	1,005,666	5.7	7.3	42.1
합 계	9,794,796	11,140,028	13.7	100.0	12,693,733	13,736,976	8.2	100.0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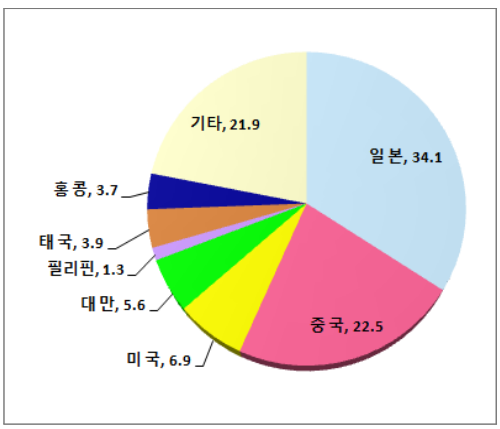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tat.tou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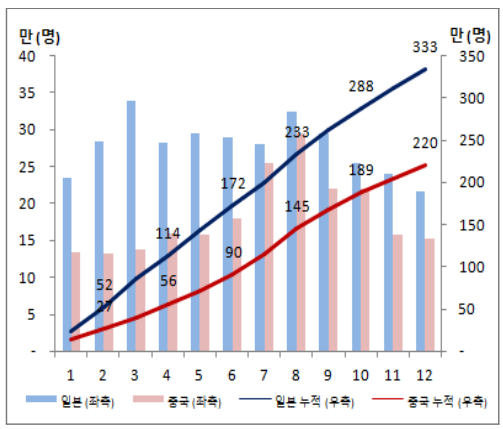
[부록 그림-12]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추이 그래프

다. 국적별

- 2012년 전체 외래객 입국의 국적별 점유율은 일본 31.6%, 중국 25.6%, 미국 6.3% 순으로 전체 외래객 입국자 중 63.5%를 차지
- 공항 외래객 입국의 국적별 점유율은 일본 34.1%, 중국 22.5%, 미국 6.9% 순으로 전체 공항이용 외래객 입국자 중 63.5%를 차지



국적별 공항이용 외래객 비율



공항이용 일본 및 중국 여객 추이

[부록 그림-13] 국적별 공항이용 외래객 그래프

〈부록 표-13〉 국적별 외래객 입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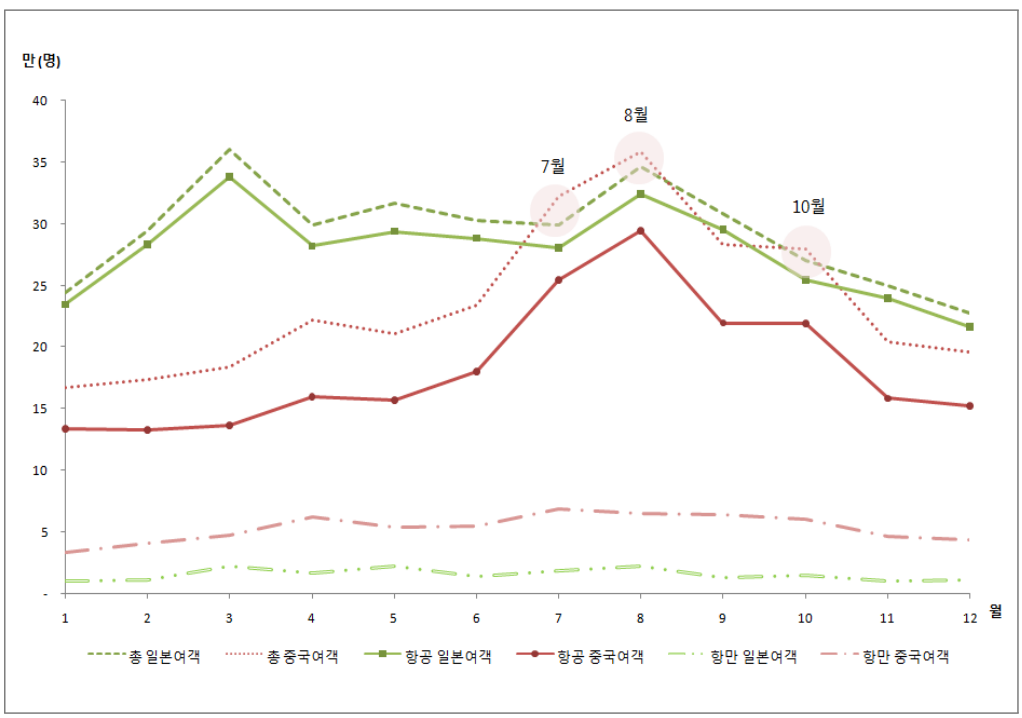
(단위: 명, %)

구 분	전체 입국	공 항							
		인천	김해	김포	제주	기타	전체	전년대비 증감률(%)	국적별 비중(%)
일 본	3,518,792	1,873,653	339,203	970,451	148,146	242	3,331,695	7.2	34.1
중 국	2,836,892	1,468,952	121,991	128,577	426,151	53,516	2,199,187	37.5	22.5
미 국	697,866	606,723	28,108	23,585	5,323	11,768	675,507	6.0	6.9
대 만	548,233	418,670	39,162	33,700	46,005	6,080	543,617	28.5	5.6
필리핀	331,346	93,153	19,774	910	13,161	76	127,074	14.0	1.3
태 국	387,441	369,465	13,172	1,146	478	683	384,944	26.5	3.9
홍 콩	360,027	317,432	29,196	1,767	10,352	185	358,932	28.7	3.7
기 타	2,459,431	1,834,723	151,110	91,333	57,902	3,430	2,138,498	11.8	21.9
전 체	11,140,028	6,982,771	741,716	1,251,469	707,518	75,980	9,759,454	16.5	100.0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tat.tour.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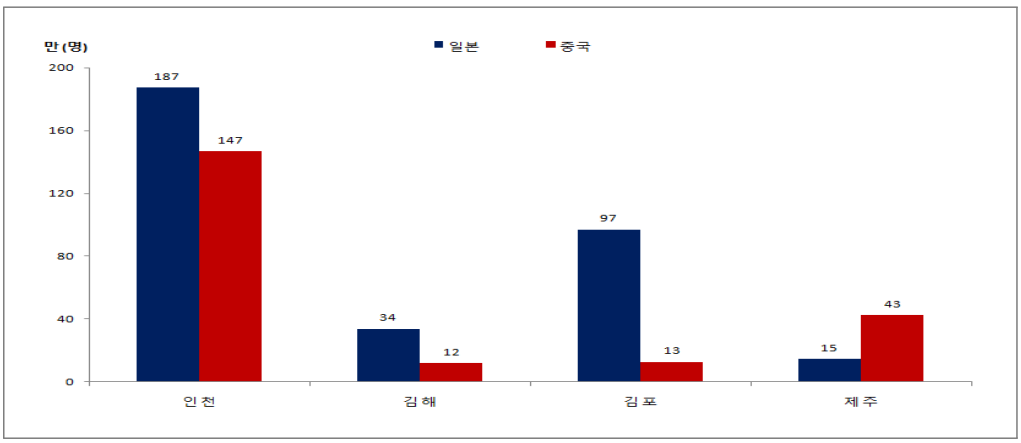
라. 일본 및 중국 여객

- 2012년 전체 외래객 입국 중 일본과 중국 국적자는 636만명으로 전체의 57.1%를 차지함. 전년대비 증가율은 15.4%를 기록
  - 일본 여객은 352만명으로 전년대비 7.0% 증가
  - 중국 여객은 284만명으로 전년대비 27.8% 증가
- 공항 외래객 입국 중 일본과 중국 국적자는 553만명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함. 전년대비 증가율은 17.5%를 기록
  - 일본 여객은 333만명으로 전년대비 7.2% 증가
  - 중국 여객은 220만명으로 전년대비 37.5% 증가
- 총 중국 여행객의 입국은 하계 휴가기간 및 중국 중추절 등의 영향으로 크게 늘어 한때 총 일본 여행객을 앞서기도 하였지만 항공 여객의 국적별 순위는 일본이 계속 1위를 유지하였음
- 항공여객에서는 일본인, 중국인 순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반면, 항만여객은 중국인, 일본인 순으로 나타나 교통수단별 선호도 차이가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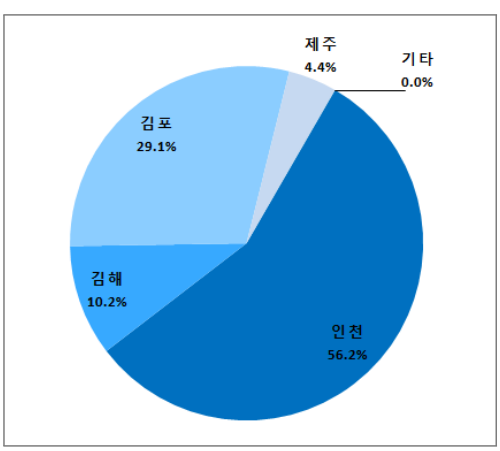
[부록 그림-14] 일본 및 중국 여객 월별 추이

- 일본과 중국 여객의 이용 공항 순위에 차이가 나타남
  - 일본 여객은 인천(56.2%), 김포(29.1%), 김해(10.2%), 제주공항(4.4%) 순으로 이용하였으며 수도권 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임
  - 중국 여객은 인천(66.8%), 제주(19.4%), 김포(5.8%), 김해공항(5.5%) 순으로 이용하였으며 제주공항에서 일본보다 높은 이용률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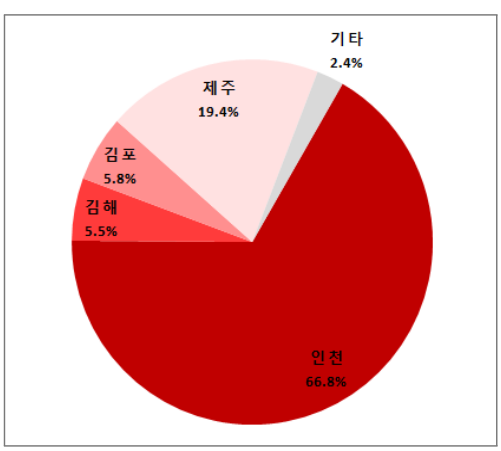


[부록 그림-15] 일본 및 중국 여객의 주요 공항 이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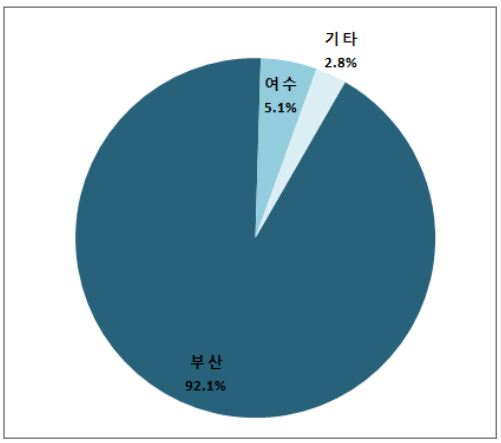
- 일본과 중국 여객의 공항 및 항구 이용에 차이가 나타남
  - 일본 여객은 공항 이용 시 수도권 공항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항구 이용 시에는 일본에서 가까운 남해지역의 항구를 주로 이용함
  - 중국 여객은 공항 이용 시 수도권 공항을 비롯하여 제주공항을 주로 이용하였으나 항구 이용 시에는 중국에서 가까운 서해지역의 항구를 주로 이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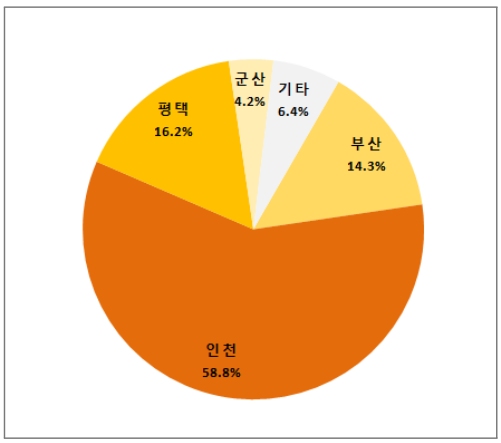
일본 여객의 공항 이용 비율



중국 여객의 공항 이용 비율



일본 여객의 항구 이용 비율



중국 여객의 항구 이용 비율

[부록 그림-16] 일본과 중국 여객의 공항 및 항구 이용 비교

1.6 품목별 화물 실적 분석

- 2012년 항공 수출화물은 53만톤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하였으나, 수출액은 1,183억달러로 1.5% 증가함
- 금액기준 수출 화물 실적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프로세스와 콘트롤러(컴퓨터 중앙처리 장치)로 수출액은 전년대비 20.2% 증가하였으나, 중량은 3.6% 감소함
  - 메모리반도체 수출액과 중량은 각각 18.0%, 18.6% 감소함
  - 기타무선전화기 수출액과 중량은 각각 13.3%, 24.0% 감소함
- 중량기준 수출 화물 실적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액정디바이스로 중량은 전년대비 89.6%, 금액은 66.0% 증가함
  - 자동차부품 중량은 41.7% 감소하여 2위를 차지하였고 기타플라스틱제품 중량은 19.8% 증가하여 3위를 차지함
    - '12 자동차부품 수출액 5억 8,826만 달러, 중량 29,908톤

〈부록 표-14〉 주요 품목별 수출 화물 실적

(단위: 백만달러, 톤, %)

순위	품목명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1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17,484	6,339	21,007	6,112	20.2	-3.6
2	메모리반도체	23,519	9,023	19,281	7,344	-18.0	-18.6
3	기타무선전화기	7,916	8,591	6,862	6,529	-13.3	-24.0
4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7,184	17,613	5,678	15,674	-21.0	-11.0
5	액정디바이스	2,754	18,082	4,572	34,288	66.0	89.6
6	인쇄회로	3,045	14,351	3,920	15,778	28.7	9.9
7	경보신호기부품	2,544	1,975	3,820	2,504	50.2	26.8
8	기타집적회로반도체	1,974	1,983	3,144	1,862	59.2	-6.1
9	코드 분할식 전화기	4,389	13,645	3,034	5,178	-30.9	-62.1
10	금	3,070	63	3,015	58	-1.8	-7.4
11	기타개별소자반도체	2,431	3,398	2,919	3,368	20.1	-0.9
12	시 분할식 전화기	2,502	5,099	1,788	2,862	-28.5	-43.9
13	기타보조기억장치	1,073	375	1,672	456	55.8	21.8
14	기타전자응용기기	1,191	1,599	1,560	1,430	30.9	-10.5
15	휴대용컴퓨터	1,244	3,659	1,529	4,255	22.8	16.3
16	기타중전(heavy electric)기기부품	881	4,937	1,228	6,421	39.4	30.1
17	의약품	865	3,467	995	3,971	15.1	14.5
18	기타플라스틱제품	668	21,196	907	25,393	35.9	19.8
19	센서	576	463	848	541	47.0	16.9
20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768	4,512	802	3,065	4.5	-32.1
	소 계	86,079	140,368	88,582	147,088	2.9	4.8
합 계		116,583	536,257	118,283	530,431	1.5	-1.1

주: MTI 6단위 사용. 금액기준 순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 금액기준 상위 3개 품목인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메모리반도체, 기타무선전화기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항공기를 통한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프로세스와 콘트롤러의 항공화물비중은 금액기준 99.0%로 전년대비 0.9%p 증가하였으며, 중량기준은 93.2%로 5.4%p 증가함
- 중량기준 상위 3개 품목인 액정디바이스, 자동차부품, 기타플라스틱제품의 수출실적을 살펴보면 선박을 통한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액정디바이스의 항공화물비중은 금액기준 16.2%로 전년대비 6.3%p 증가하였으며, 중량기준은 10.9%로 5.7%p 증가함
- 자동차부품의 항공화물비중은 금액기준 2.4%로 전년대비 1.2%p 감소하였으며, 중량기준은 1.0%로 0.8%p 감소함

● 항공화물의 비중이 적은 일부 품목들은 전체 화물의 증감과 항공화물의 증감이 다른 양상을 보임

- 액정디바이스의 전체 수출 중량은 감소했으나 항공화물 중량은 크게 증가함
- 자동차부품의 전체 수출액 및 중량은 증가했으나 항공화물은 크게 감소함

〈부록 표-15〉 주요 수출 품목의 항공과 항만실적 비교

(단위: 백만달러, 톤, %, %p)

품목명*	항 공		항 만		전 체*		항공비중		항만비중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21,007 (20.2)	6,112 (−3.6)	222 (−35.7)	449 (−49.0)	21,229 (19.1)	6,561 (−9.1)	99.0 (0.9)	93.2 (5.4)	1.0 (−0.9)	6.8 (−5.4)
메모리반도체	19,281 (−18.0)	7,344 (−18.6)	12 (−11.1)	50 (−11.9)	19,293 (−18.0)	7,394 (−18.6)	99.9 (−0.0)	99.3 (−0.1)	0.1 (0.0)	0.7 (0.1)
기타무선전화기	6,862 (−13.3)	6,529 (−24.0)	3 (240.9)	11 (−43.6)	6,868 (−13.3)	6,544 (−24.0)	99.9 (−0.1)	99.8 (0.0)	0.0 (0.0)	0.2 (−0.1)
액정디바이스	4,572 (66.0)	34,288 (89.6)	23,595 (−5.8)	279,752 (−15.3)	28,167 (1.3)	314,041 (−9.9)	16.2 (6.3)	10.9 (5.7)	83.8 (−6.3)	89.1 (−5.7)
자동차부품	588 (−29.8)	29,908 (−41.7)	24,026 (8.0)	2,968,541 (6.5)	24,615 (6.6)	2,998,493 (5.7)	2.4 (−1.2)	1.0 (−0.8)	97.6 (1.2)	99.0 (0.8)
기타플라스틱제품	907 (35.9)	25,393 (19.8)	4,682 (5.7)	969,042 (4.1)	5,594 (9.7)	995,184 (4.5)	16.2 (3.1)	2.6 (0.3)	83.7 (−3.1)	97.4 (−0.4)

주: 1) MTI 6단위 사용. 금액기준 순위
2) 전체화물=항공화물+항만화물+육로화물+기타화물
3) 품목 - 금액기준 상위 3개 수출 품목 및 중량기준 상위 3개 수출 품목
4)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단, 항공비중 및 항만비중의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p)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 2012년 항공 수입화물은 46만톤으로 전년대비 6.5%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1,036억 달러로 5.9% 감소함

● 금액기준 수입 화물 실적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프로세스와 콘트롤러로 수입액과 중량은 각각 전년대비 6.3% 증가, 11.9% 감소함

- 기타집적회로반도체의 수입액과 중량은 각각 8.0% 증가, 1.3% 감소함
- 메모리반도체 수입액과 중량은 각각 19.5%, 11.2% 감소함

- 중량기준 수입 화물 실적 중 1위를 차지한 품목은 기타플라스틱제품으로 중량은 전년대비 13.7%, 금액은 8.9% 증가함
  - 자동차부품 중량은 46.8% 감소하여 2위를 차지하였고 반도체제조용장비 중량은 3.5% 감소하여 3위를 차지함
    - '12 자동차부품 수입액 5억 4,613만 달러, 중량 12,429톤

〈부록 표-16〉 주요 품목별 수입 화물 실적

(단위: 백만달러, 톤, %)

순위	품목명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감률(%)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1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13,482	4,130	14,337	3,637	6.3	−11.9
2	기타집적회로반도체	5,394	2,939	5,823	2,902	8.0	−1.3
3	메모리반도체	6,733	1,867	5,420	1,657	−19.5	−11.2
4	반도체제조용장비	5,608	12,435	5,263	11,999	−6.1	−3.5
5	의약품	3,350	8,225	3,499	9,534	4.4	15.9
6	기타개별소자반도체	3,060	4,168	3,250	4,034	6.2	−3.2
7	인쇄회로	1,940	11,953	2,365	11,775	21.9	−1.5
8	기타배전및제어기	1,676	2,130	2,323	2,490	38.6	16.9
9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2,648	4,100	1,927	3,119	−27.3	−23.9
10	금	1,617	33	1,473	28	−8.9	−14.8
11	비행기	2,476	2,298	1,388	1,238	−43.9	−46.1
12	기타화학공업제품	1,480	6,700	1,340	5,897	−9.4	−12.0
13	액정디바이스	1,739	4,647	1,327	4,297	−23.7	−7.5
14	반도체제조용장비부품	1,100	1,882	1,257	2,067	14.3	9.8
15	기타플라스틱제품	1,011	13,021	1,101	14,808	8.9	13.7
16	기타정밀화학원료	1,085	7,557	1,066	5,364	−1.8	−29.0
17	기타컴퓨터부품	1,293	4,408	1,058	4,025	−18.2	−8.7
18	센서	935	1,325	950	1,270	1.6	−4.1
19	물리화학분석기	826	1,920	904	2,164	9.5	12.7
20	기타중전(heavy electric)기기부품	1,133	6,127	894	5,123	−21.1	−16.4
	소 계	58,584	101,867	56,965	97,428	−2.8	−4.4
합 계		110,124	487,807	103,647	455,940	−5.9	−6.5

주: MTI 6단위 사용. 금액기준 순위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 금액기준 상위 3개 품목인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기타집적회로반도체, 메모리반도체의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항공기를 통한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프로세스와 콘트롤러의 항공화물비중은 금액기준 99.5%로 전년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중량기준은 96.8%로 1.2%p 증가함
- 중량기준 상위 3개 품목인 기타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반도체제조용장비의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대체로 선박을 통한 수입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자동차부품의 항공화물비중은 금액기준 11.1%로 전년대비 4.9%p 감소하였으며, 중량기준은 3.6%로 2.0%p 감소함
- 항공화물의 비중이 적은 일부 품목들은 전체 화물의 증감과 항공화물의 증감이 다른 양상을 보임
  - 기타플라스틱제품의 전체 수입액은 감소했으나 항공화물은 증가함

〈부록 표-17〉 주요 수입 품목의 항공과 항만실적 비교

(단위: 백만달러, 톤, %, %p)

품목명*	항 공		항 만		전 체*		항공비중		항만비중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금액	중량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14,337	3,637	66	121	14,404	3,759	99.5	96.8	0.5	3.2
	(6.3)	(−11.9)	(−10.8)	(−36.0)	(6.2)	(−13.0)	(0.1)	(1.2)	(−0.1)	(−1.2)
기타집적회로반도체	5,823	2,902	32	205	5,856	3,107	99.4	93.4	0.5	6.6
	(8.0)	(−1.3)	(−11.1)	(−27.3)	(7.8)	(−3.6)	(0.1)	(2.2)	(−0.1)	(−2.2)
메모리반도체	5,420	1,657	26	98	5,446	1,755	99.5	94.4	0.5	5.6
	(−19.5)	(−11.2)	(−45.8)	(139.0)	(−19.7)	(−8.0)	(0.2)	(−3.4)	(−0.2)	(3.4)
기타플라스틱제품	1,101	14,808	4,483	495,990	5,588	511,431	19.7	2.9	80.2	97.0
	(8.9)	(13.7)	(−4.8)	(3.4)	(−2.3)	(3.8)	(2.0)	(0.3)	(−2.1)	(−0.4)
자동차부품	546	12,429	4,371	335,349	4,919	348,144	11.1	3.6	88.9	96.3
	(−41.6)	(−46.8)	(−10.8)	(−15.3)	(−15.7)	(−16.9)	(−4.9)	(−2.0)	(4.9)	(1.9)
반도체제조용장비	5,263	11,999	2,588	14,252	7,851	26,250	67.0	45.7	33.0	54.3
	(−6.1)	(−3.5)	(−8.7)	(−27.1)	(−7.0)	(−17.9)	(0.6)	(6.8)	(−0.6)	(−6.8)

주: 1) MTI 6단위 사용. 금액기준 순위
2) 전체화물=항공화물+항만화물+육로화물+기타화물
3) 품목 - 금액기준 상위 3개 수입 품목 및 중량기준 상위 3개 수입 품목
4)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단, 항공비중 및 항만비중의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감(%p)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1.7 향후전망

가. 여객

- 2012년에는 K-Pop 신한류 열풍, 개별자유여행객(FIT) 증가, 저비용 항공사의 신규 취항노선 증가, 여가 문화 확산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국제·국내여객 모두 성장세를 지속
- 2013년에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대회(1.29~2.5) 개최, 세계 사이버스페이스 총회, 세계에너지총회 등으로 MICE[27] 관광, K-Pop 신한류 열풍으로 인한 한류문화관광, 의료관광 등으로 인한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력 증가 및 다양한 운임할인 마케팅 등에 힘입어, 국제·국내여객 모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나. 화물

- 유럽·미국 등 세계경기회복 지연,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012년 국내·국제화물 수요 감소세 지속
- 2013년에 유럽 재정위기 지속, 미국 재정절벽, 선진국의 양적완화로 인한 환율 하락 등으로 국제화물의 성장정체가 예상되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교체 및 시스템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27)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약어